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의원 의식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전체 대의원 4,609명 가운데, 전체 응답자 1,416명

○ 조사 기간

- 2013년 2월 15일 ~ 3월 13일

○ 조사 및 분석

- 설문지 작성 및 수거 : 민주노총 새정치특별위원회

- 분석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 SPSS 12.0 통계패키지 이용.

2013. 4. 4.



I.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2012년 진보정당 분열 등으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활동과 진보정치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전망 수립이 절실한 상황.
- 이에 현재 진보정치에 대한 판단과 이후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조사 기간

- 2013년 2월 15일 ~ 3월 13일

○ 조사 대상

- 민주노총 각 산별 및 지역본부 대의원 전체 4,609명 가운데, 대의원대회에 참가해 설문에 응한 1,4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조사 내용

- 일반적 사항 : 소속(연맹/지역본부), 성별(남/여), 연령, 지지정당
- 진보정당의 필요성/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사업에 대한 평가/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 민주노총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됨.

○ 조사 분석 및 기타

- 설문지는 민주노총 새정치특별위원회에서 작성·수거했으며, 조사결과 분석은 SPSS(12.0)을 통해 정책기획실이 수행하였음.
- 본 조사 분석은 설문결과에 따른 객관적 사항만 정리했으며 향후 민주노총의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II. 응답자 분석

1. 소속

-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의원 가운데 1,41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각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응답자 구성분포는 아래와 같음.

[표-1]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별 대의원 응답자 분포(단위 : 명, %)

연맹	응답자 수		지역본부	응답자 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건설산업연맹	86	6.1	서울본부	31	2.2
공공운수노조연맹	64	4.5	인천본부	44	3.1
공무원노조	191	13.5	경기본부	43	3.0
교수노조	1	0.1	충북본부	26	1.8
금속노조	114	8.1	대전본부	67	4.7
대학노조	-	-	충남본부	-	-
민주일반연맹	131	9.3	전북본부	38	2.7
보건의료노조	44	3.1	광주본부	50	3.5
비정규교수노조	25	1.8	전남본부	-	-
사무금융연맹	14	1.0	대구본부	41	2.9
서비스연맹	42	3.0	경북본부	-	-
언론노조	-	-	부산본부	45	3.2
여성연맹	-	-	울산본부	22	1.6
전교조	122	8.6	경남본부	-	-
화학섬유연맹	67	4.7	강원본부	39	2.8
경제정보연맹	26	1.8	제주본부	43	3.0
소계	927	65.6	소계	489	34.5
총계	1,416 (100%)				

2. 성별

- 전체 응답자(1,416명) 중 남성은 1,099명(77.6%), 여성은 269명(19.0%), 무응답 49명(3.5%).

[표-2] 응답자의 성별 분포(단위 : 명, %)

전체	남성	여성	무응답
1,416명	1,099	269	48
(100%)	(77.6)	(19.0)	(3.4)

3.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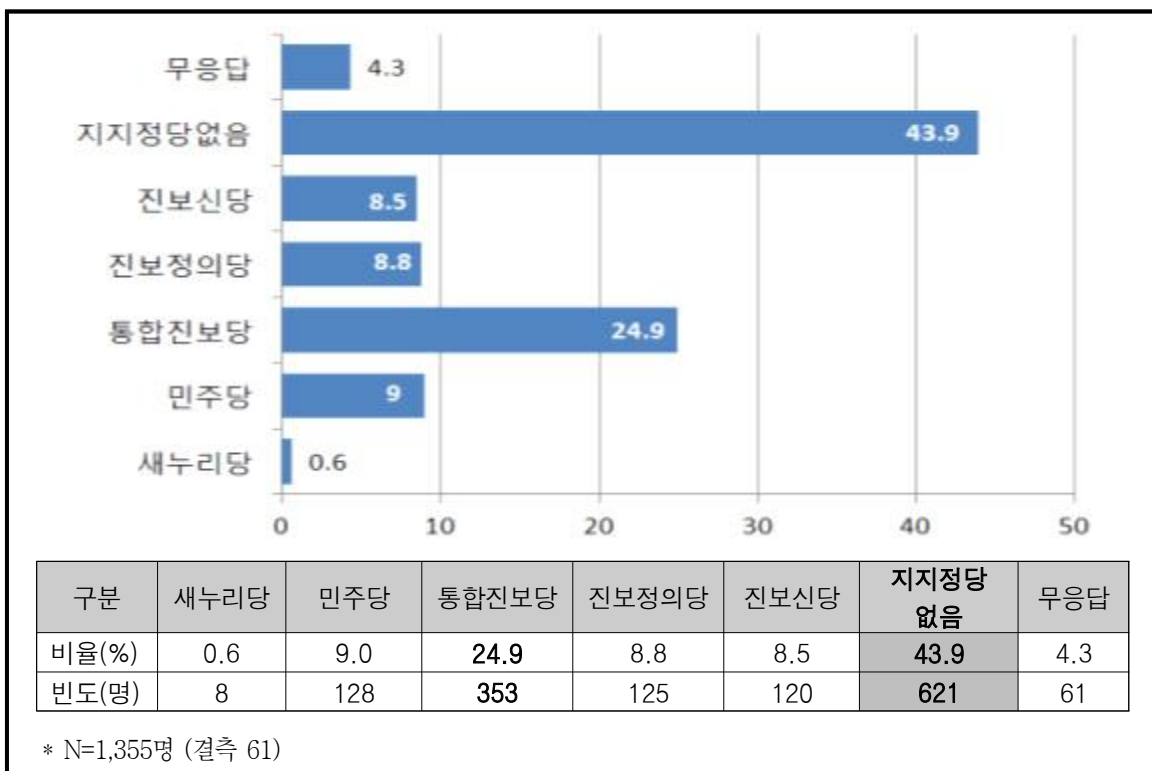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1,417명) 중 40대가 53.4%(756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6.6%, 30대가 11.4%(161명)이었으며, 20대와 60대는 각각 0.7%, 1.2%임.

[표-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단위 : 명,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1,416명	10	161	756	375	17	96
(100%)	0.7	11.4	53.4	26.6	1.2	6.8

4) 현재 지지하는 정당

[그림-1] 응답자의 현재 지지정당(단위 : %)



-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43.9%(621명)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변.
- 지지정당 중에서는 통합진보당이 24.9%(3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민주당 (9.0%), 진보정의당(8.8%), 진보신당(8.5%) 순으로 유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4-1) 연령대별 현재 지지정당

[표-4] 연령대별 현재 지지정당 (단위 : 명, %)

구분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지지정당 없음	전체
30대 이하	빈도	0	15	47	10	9	85	166
	연령의%	0%	9.0%	28.3%	6.0%	5.4%	51.2%	100.0
40대	빈도	1	63	197	73	67	336	737
	연령의%	1%	8.5%	26.7%	9.9%	9.1%	45.6%	100.0
50대 이상	빈도	7	44	88	39	39	158	375
	연령의%	1.9%	11.7%	23.5%	10.4%	10.4%	42.1%	100.0
전체	빈도	8	122	332	122	115	579	1,278
	연령의%	0.6%	9.5%	26.0%	9.5%	9.0%	45.3%	100

* N=1,278명 (결측 138, 9.7% 제외).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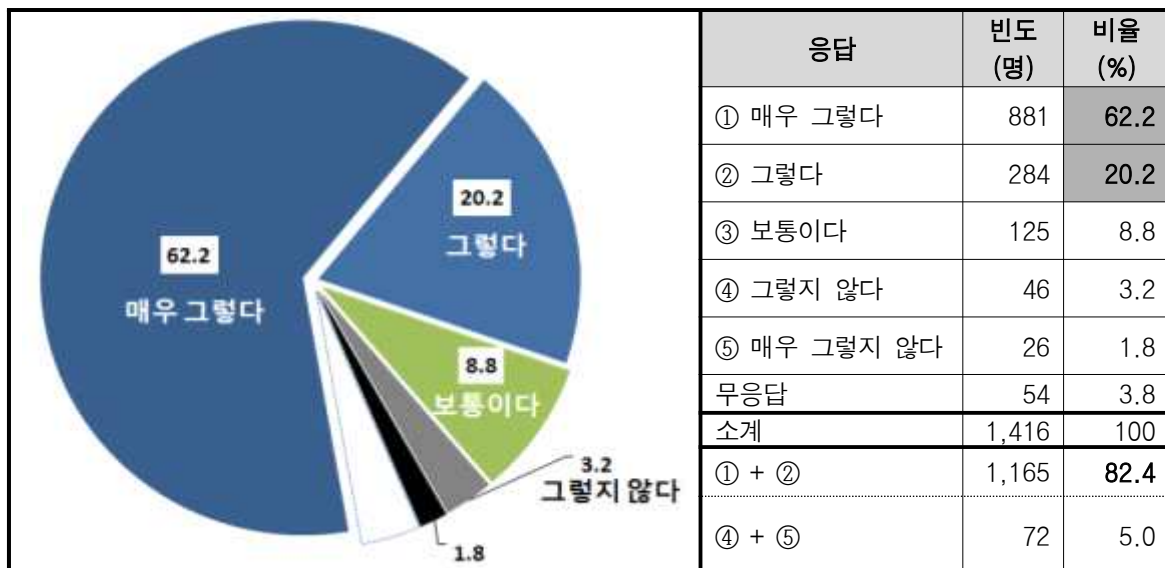
- 30대 이하(166명) 응답자의 지지하는 정당을 분류하면, 지지정당 없음(51.2%), 통합진보당(28.3%), 민주당(9.0%), 진보정의당(6.0%), 진보신당(5.4%)순으로 나타났으며, 새누리당 지지자는 없음.
- 40대의 경우(737명), 지지정당 없음(45.6%), 통합진보당(26.7%), 진보정의당(9.9%), 진보신당(9.1%), 민주당(8.5%) 순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375명)은 지지정당 없음(42.1%), 통합진보당(23.5%), 민주당(11.7%),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 각각 10.4%, 새누리당은 1.9%로 나타남.
-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이하(51.2%), 40대(45.6%), 50대 이상(42.1%) 순으로 나타남.

Ⅲ. 조사결과

1.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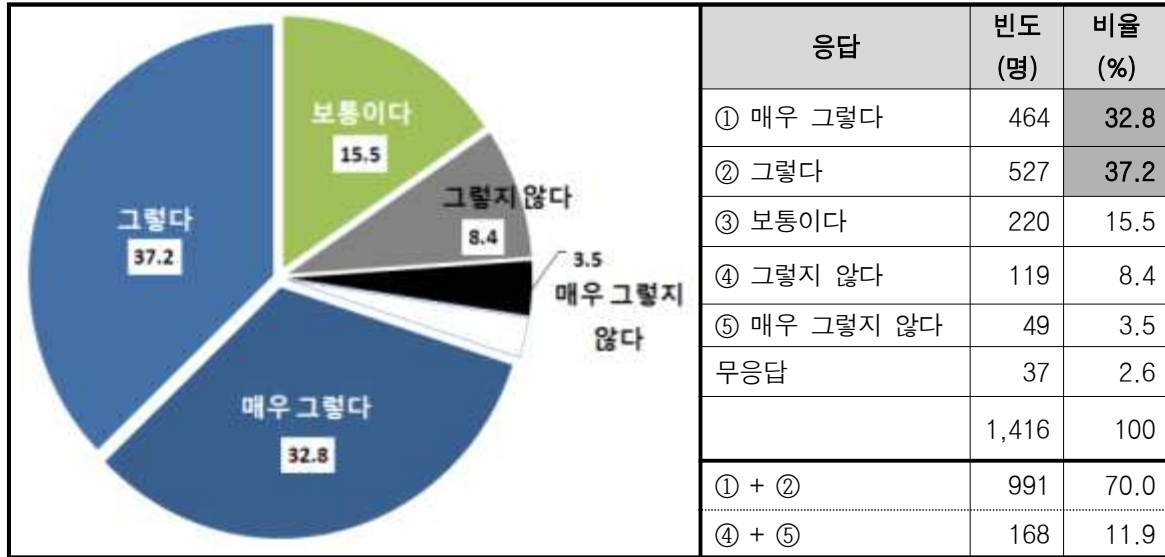
1-1) 진보정당의 필요성

-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2.4%(1,165명)**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이 중 **62.2%**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
-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4.0%(72명)에 불과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8%에 그침.



1-2) 현재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가치 실종 여부

-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 가치에 대해 70.0%(991명)가 “실종”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우 그렇다’는 32.8%, ‘그렇다’는 37.2%로 나타났음.
- 반면, 진보정당이 여전히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1.9%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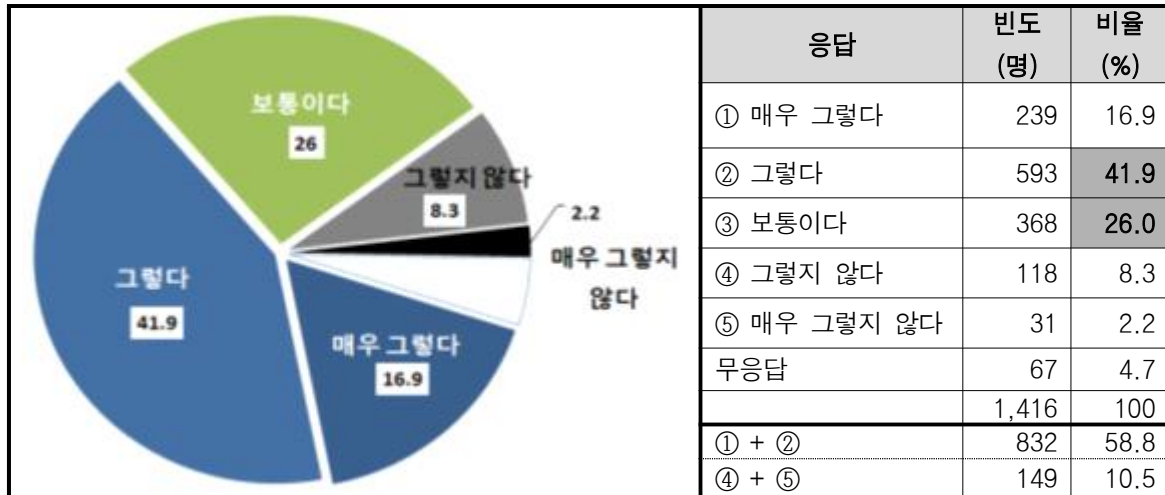


1-3) 진보정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진보정당이 노동조합을 ‘돈 대고, 몸 대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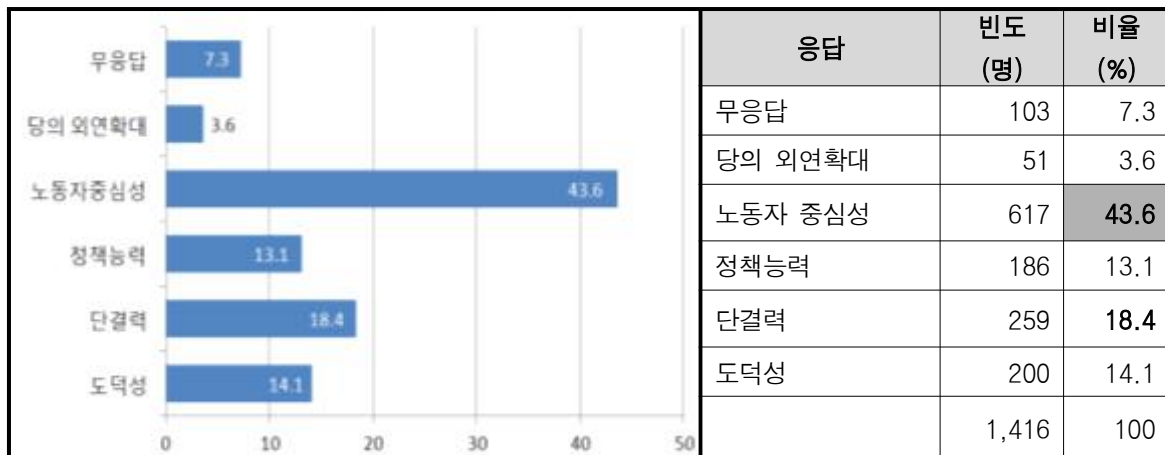
- 응답자 가운데 51.4%가 진보정당이 노동조합에 대해 소위 “돈 대고, 몸 대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20.8%는 ‘매우 그렇다’게 생각하고 있음.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9.1%, ‘매우 그렇지 않다’는 5.6%로 나타남.

1-4) 진보정당의 노동조합 강화 활동에 대한 평가 : “진보정당이 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



- “진보정당이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묻는 질문에, 58.8%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 가운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16.9%임.
- 반면, 진보정당의 노동조합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0.5%임.

1-5)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



-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으로 43.6%가 ‘노동자 중심성’을 꼽았음.
- 이는 단결력(18.4%), 도덕성(14.1%), 정책능력(13.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당의 외연확대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활동 평가

2-1)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진보정당 발전에 기여하였다.	21.6	36.9	25.1	10.7	3.6	1.8
	309	522	356	152	51	26
진보적 의제의 정치쟁점화에 기여하였다.	24.8	40.1	24.2	7.4	1.7	1.8
	351	568	343	105	24	25
조합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 력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 었다.	25.6	32.2	24.3	12.4	3.7	1.8
	363	456	344	175	53	25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 “진보정당 발전에 기여하였다” : 58.5% 긍정적, 13.9% 부정적.
- “진보적 의제의 정치쟁점화에 기여하였다” : 64.9% 긍정적, 9.1% 부정적
- “조합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 57.8% 긍정적, 16.1%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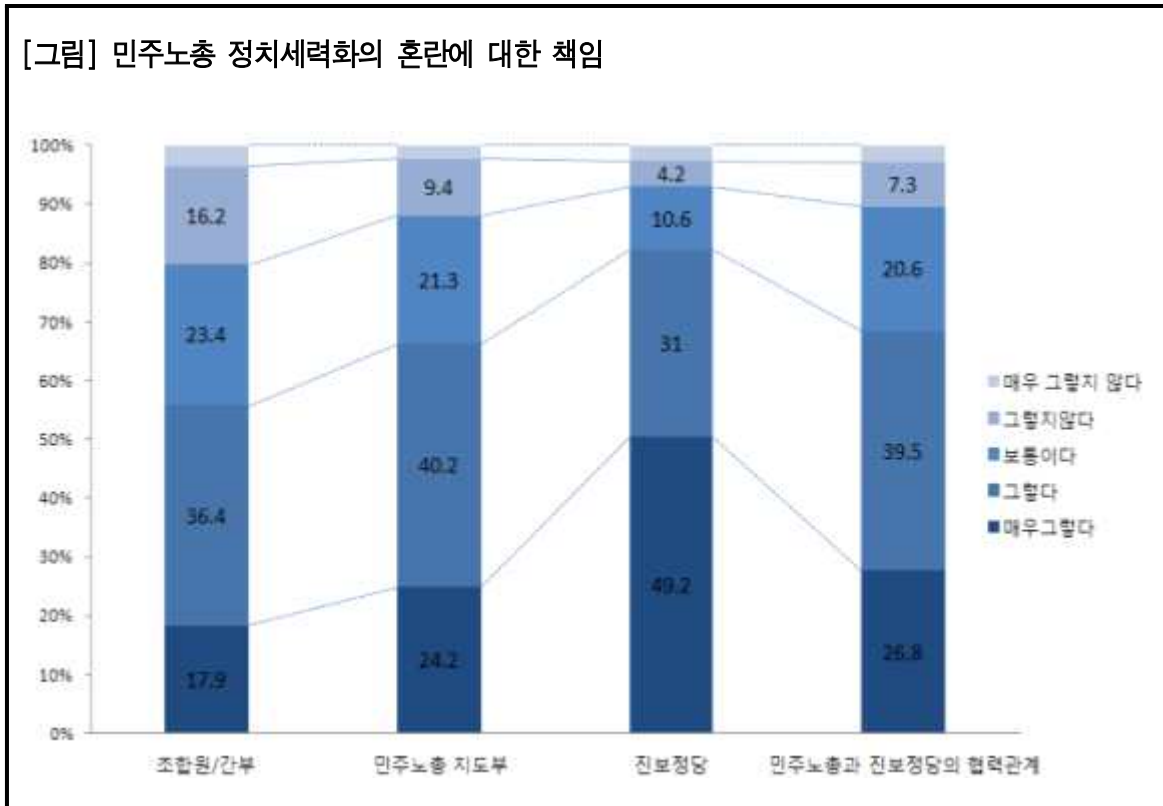
- 지난 10년 간 민주노총이 진행한 진보정당 사업이 “진보정당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309명), ‘그렇다’는 36.9%(568명)로 **58.5%(877명)가 긍정적으로 답변**. 반면, 13.9%(203명)는 진보정당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진보적 의제의 정치쟁점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24.8%(351명), ‘그렇다’는 40.1%(568명)로 **64.9%(919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9.1%(129명)이며,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4.2%(343명)임.
- “조합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평가가 25.6%(363명), ‘그렇다’는 32.2%(456명)로 **57.8%(819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16.1%(228명)은 부정적으로 응답함.

- 진보정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가운데, ‘진보적 의제의 정치쟁점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64.9%(919명)로 가장 높았으며, ‘조합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평가에 가장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16.1%).

2-2)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혼란에 대한 책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간부	17.9	36.4	23.4	16.2	3.5	2.6
	253	515	332	230	49	37
민주노총 지도부	24.2	40.2	21.3	9.4	2.2	2.8
	343	569	301	133	31	39
진보정당	49.2	31.0	10.6	4.2	2.6	2.4
	696	439	150	60	37	34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협력적 관계 미 정착	26.8	39.5	20.6	7.3	2.8	3.1
	380	559	291	103	39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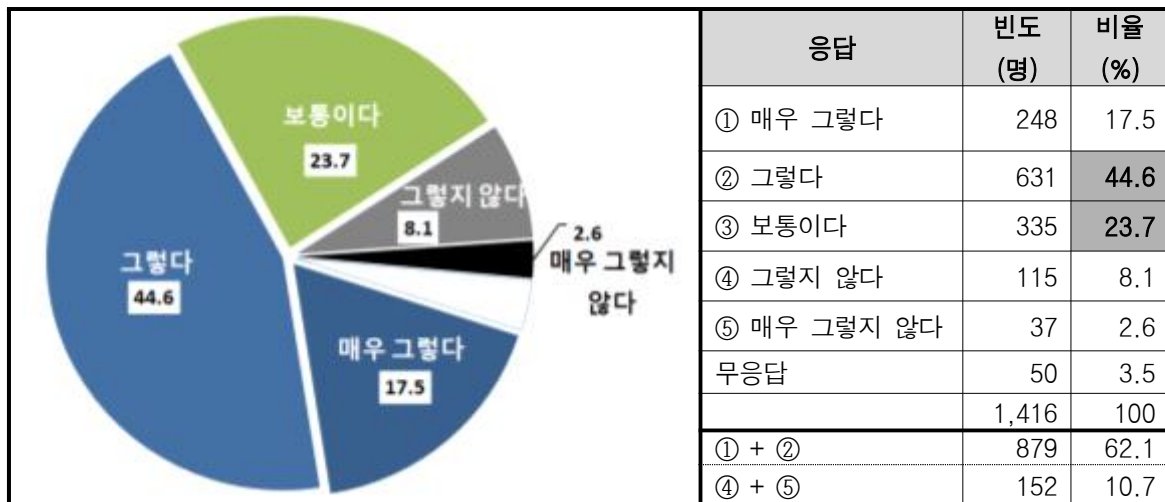
[그림]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의 혼란에 대한 책임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혼란’에 대해 조합원이나 간부, 민주노총 지도부, 진보정당 등 각 주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임.

- 진보정당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1,135명)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매우 책임이 크다고 평가하는 입장 역시 49.2%로 높게 나타났음.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우, 64.4%(912명)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4.2%는 매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함.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간부에 대해서도 54.1%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함.
- 반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은 조합원이나 간부의 경우 19.7%, 민주노총 지도부의 경우 11.6%, 진보정당은 6.8%로 낮게 나타났음.
-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협력적 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66.3%로 높게 나타났으며, 10.1%만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 중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2.8%밖에 되지 않음.

2-3) 노동조합의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역할 평가: “노동조합이 진보정당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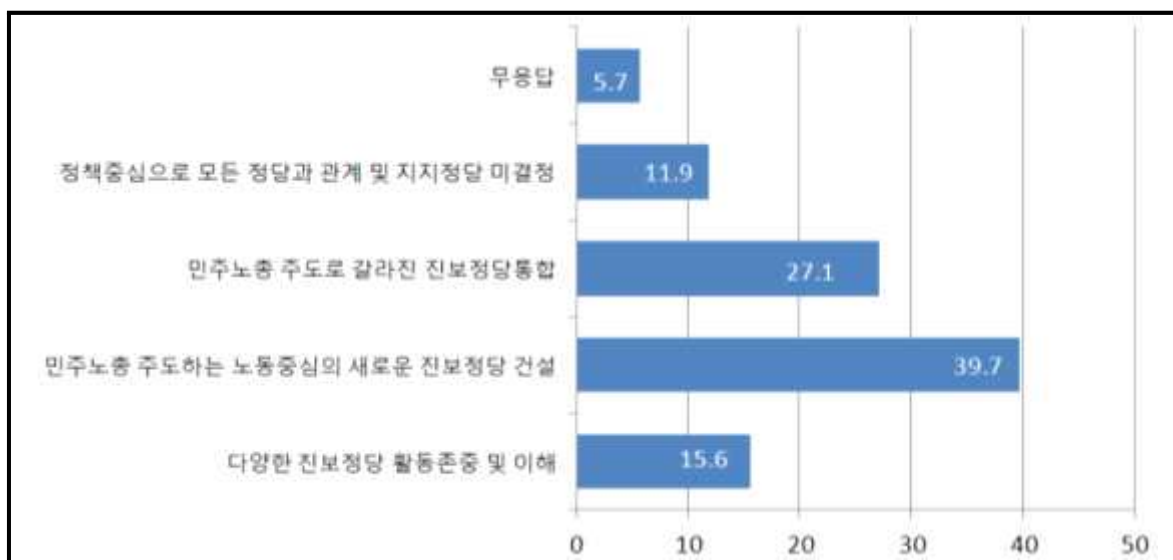


- 노동조합의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대해 62.1%가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음. 이 중 ‘매우 그렇다’며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응답 비율은 17.5%임. 이는 앞서(4-3항목) 진보정당의 노동조합 강화를 위한 활동이 부족했다는 의견(58.8%)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
- 반면, 노동조합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10.7%로 낮은 수준이며, 진보정당의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임(10.5%).

3. 민주노총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인식

3-1) 진보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정의당 등 다수의 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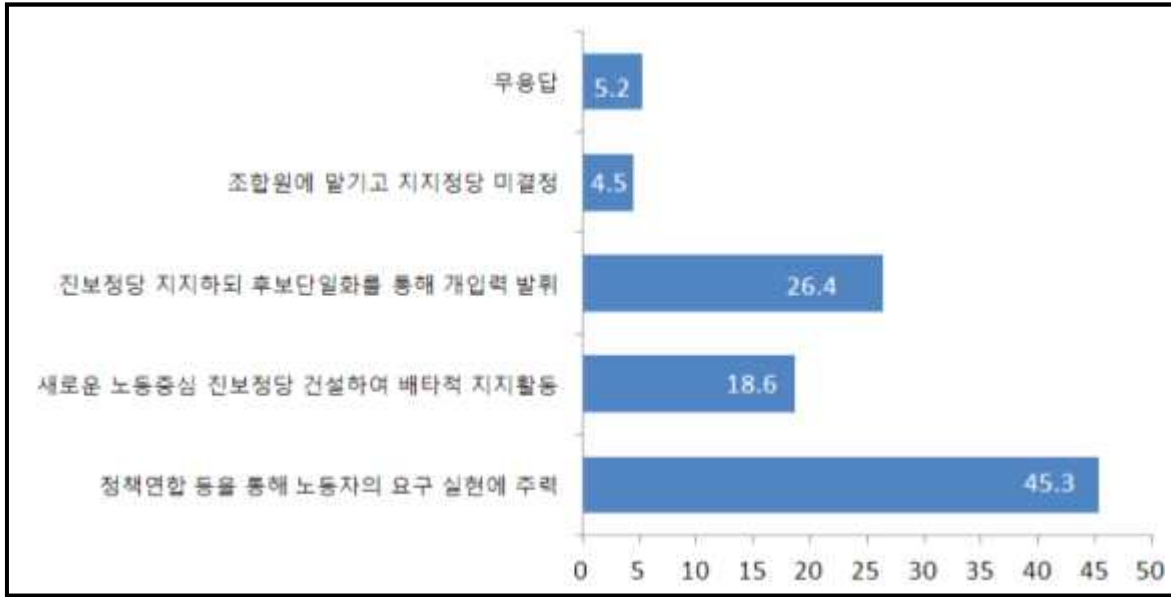
- 진보정당에 대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562명)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노총 주도로 갈라진 진보정당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384명), 그리고 “정책중심으로 각 정당과 관계를 맺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11.9%(168명)를 차지했음.



3-2)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민주노총의 역할 :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총선 등 정치일정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향후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책연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진보정당들을 지지하되, 진보 후보단일화를 통해 통합적 개입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26.4%,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 배타적 지지방침에 기초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18.6%로 나타났음.

-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말고, 조합원 (의사)에 맡기자”는 입장은 4.5%로 낮게 나타남.



[표-16] 지지정당별 정당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다양한 진보정당 활동존중 및 이해	민주노총 주도로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민주노총 주도로 갈라진 진보정당 통합	정책중심으로 모든 정당과 관계 및 지지정당 미결정	소계
민주당	빈도	19	47	41	18	125
	%	15.2%	37.6%	32.8%	14.4%	100
통합 진보당	빈도	46	120	155	11	332
	%	13.9%	36.1%	46.7%	3.3%	100
진보 정의당	빈도	22	52	35	10	119
	%	18.5%	43.7%	29.4%	8.4%	100
진보 신당	빈도	40	49	20	9	118
	%	33.9%	41.5%	16.9%	7.6%	100
지지정당 없음	빈도	87	277	124	115	603
	%	14.4%	45.9%	20.6%	19.1%	100

* N=1,297명. 5보다 작은 기대빈도 새누리당 제외. p-.000<0.05.

[표-17] 지지정당별 선거에서의 민주노총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정책연합 등을 통해 노동자 요구 실현 주력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하여 배타적 지지	진보정당 지지하되, 후보단일화를 통해 개입력 강화	조합원에 맡기고 지지정당 미결정	소계
민주당	빈도	72	12	34	7	125
	%	57.6%	9.6%	27.2%	5.6%	100
통합진보당	빈도	150	58	125	4	337
	%	44.5%	17.2%	37.1%	1.2%	100
진보정의당	빈도	55	31	29	2	117
	%	47.0%	26.5%	24.8%	1.7%	100
진보신당	빈도	45	30	38	4	117
	%	38.5%	25.6%	32.5%	3.4%	100
지지정당 없음	빈도	297	125	139	46	607
	%	48.9%	20.6%	22.9%	7.6%	100

* N=1,303명(결측 N 113). 5보다 작은 기대빈도 새누리당 제외. p-.000<0.05.

<연맹 및 지역본부별 통계표>

1. 응답자 일반사항

구분	N	성별(p=.000<0.05)			연령(p=.000<0.05)						현재 지지정당(p=.000<0.05)							
		남	여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소계	새누리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없음	소계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86	0	86	0	4	43	37	2	86	1	12	43	6	2	20	84
	공공운수노조연맹	64	51	13	64	0	4	39	18	1	62	0	7	5	8	15	28	63
	공무원노조	191	153	38	191	1	8	121	57	0	187	1	30	43	15	7	90	186
	교수노조	1	1	0	1	0	0	0	1	0	1	0	0	0	0	1	0	1
	금속노조	114	93	13	106	0	20	68	17	0	105	0	6	28	3	9	61	107
	민주일반연맹	131	117	10	127	0	7	47	62	5	121	4	12	20	21	3	64	124
	보건의료노조	44	18	26	44	1	13	25	4	0	43	0	2	9	6	2	24	43
	비정규교수노조	25	20	5	25	0	3	9	10	1	23	0	6	3	1	2	13	25
	사무금융연맹	14	11	3	14	0	3	10	1	0	14	0	2	2	2	1	7	14
	서비스연맹	42	29	12	41	1	10	19	5	2	37	0	9	10	4	2	16	41
	전교조	122	50	52	102	0	18	48	30	1	97	0	3	19	9	23	58	112
	화학섬유연맹	67	61	4	65	0	6	52	6	0	64	0	1	31	8	1	22	63
경제정보연맹	26	20	5	25	0	9	15	0	0	24	0	5	0	5	0	13	23	
지 역 본 부	서울본부	31	21	9	30	0	0	21	6	1	28	0	1	2	2	0	26	31
	인천본부	44	39	5	44	1	1	28	14	0	44	0	6	2	6	8	15	37
	경기본부	43	33	10	43	1	7	24	9	1	42	0	1	21	2	3	15	42
	충북본부	26	17	9	26	2	1	11	12	0	26	0	1	7	3	3	11	25
	대전본부	67	56	10	66	1	7	3	16	0	57	0	9	25	5	2	24	65
	전북본부	38	35	0	35	0	8	14	12	0	34	0	2	6	6	2	19	35
	광주본부	50	35	14	49	0	12	32	3	0	47	0	0	37	2	4	6	49
	대구본부	41	35	6	41	0	2	15	22	0	39	1	5	5	2	3	25	41
	부산본부	45	40	4	44	0	5	24	12	3	44	0	3	20	2	8	12	45
	울산본부	22	19	2	21	0	3	14	4	0	21	1	1	6	0	0	14	22
	강원본부	39	32	5	37	0	3	22	12	0	37	0	1	3	2	3	28	37
제주본부	43	27	14	41	2	7	22	6	0	37	0	3	6	5	16	10	40	

2. 진보정당 인식(1)

구분	N	진보정당의 필요성(p=.002<0.05)							진보정당의 노동자중심성과 노동가치 (노동자 중심성과 노동가치가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p=.272>0.05)						진보정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이 돈대고, 몸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p=.000<0.05)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매우 필요 없음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62	15	7	1	0	85	35	31	11	7	2	86	22	27	11	19	6	85
	공공운수노조연맹	64	33	16	8	1	4	62	28	20	11	3	2	64	26	20	11	4	1	62
	공무원노조	191	111	48	17	7	4	187	65	70	26	19	6	186	35	59	44	34	12	184
	교수노조	1	1	0	0	0	0	1	0	0	0	1	0	1	0	0	0	0	1	1
	금속노조	114	72	20	10	7	2	111	45	34	16	11	3	109	35	32	14	21	5	107
	민주일반연맹	131	79	20	9	4	2	114	42	45	23	10	1	121	35	34	34	19	1	123
	보건의료노조	44	33	6	2	1	0	42	17	13	7	6	1	44	8	14	113	8	1	44
	비정규교수노조	25	14	9	1	1	0	25	5	14	3	2	0	24	2	9	6	6	2	25
	사무금융연맹	14	7	6	1	0	0	14	6	6	2	0	0	14	2	7	4	1	0	14
	서비스연맹	42	20	10	9	1	1	41	13	20	7	2	0	42	5	15	13	9	0	42
	전교조	122	91	16	6	0	0	113	25	58	18	12	5	118	13	34	20	38	10	115
	화학섬유연맹	67	38	12	9	4	3	66	22	26	10	5	2	65	21	21	9	10	4	65
경제정보연맹	26	10	12	4	0	0	26	5	11	6	4	0	26	1	18	4	3	0	26	
지 역 분 부	서울본부	31	21	4	1	4	0	30	11	13	7	0	0	31	8	10	8	5	0	31
	인천본부	44	29	5	5	3	1	43	20	12	8	2	1	43	8	12	14	5	2	41
	경기본부	43	31	7	1	3	1	43	11	11	7	8	6	43	7	9	6	14	7	43
	충북본부	26	17	5	1	1	0	24	10	9	4	3	0	26	2	12	8	4	0	26
	대전본부	67	35	18	9	2	3	67	10	31	20	2	3	66	11	19	19	14	4	67
	전북본부	38	25	8	2	0	1	36	17	11	7	0	1	36	6	10	13	7	0	36
	광주본부	50	39	7	3	0	0	49	13	18	3	6	9	49	6	11	6	15	11	49
	대구본부	41	20	8	7	1	2	38	15	15	4	2	3	39	7	19	5	7	3	41
	부산본부	45	33	8	1	0	1	43	11	17	10	4	3	45	4	15	16	8	1	44
	울산본부	22	9	6	5	2	0	22	8	9	3	1	1	22	4	8	2	5	3	22
	강원본부	39	26	6	4	0	1	37	19	15	1	3	0	38	12	14	3	7	2	38
제주본부	43	25	12	3	3	0	43	11	18	6	6	0	41	7	12	12	8	4	43	

2. 진보정당 인식(2)

구분	N	진보정당이 노동조합강화를 위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p=.330>0.05)						진보정당이 지켜야할 가장 큰 원칙 (p=.003<0.05)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도덕성	단결력	정책능력	노동자 중심성	당의 외연확대	소계	
1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20	37	15	10	3	85	17	19	9	30	1	76
	공공운수노조연맹	64	19	27	11	4	1	62	9	5	7	33	5	59
	공무원노조	191	28	86	47	15	7	183	36	42	28	72	5	183
	교수노조	1	0	1	0	0	0	1	0	1	0	0	0	1
	금속노조	114	28	40	28	8	1	105	17	24	8	50	2	101
	민주일반연맹	131	23	39	34	14	2	112	20	22	13	59	3	117
	보건의료노조	44	8	18	14	3	0	43	4	9	6	17	4	40
	비정규교수노조	25	3	9	6	6	1	25	6	3	8	4	3	24
	사무금융연맹	14	2	7	5	0	0	14	1	4	4	4	0	13
	서비스연맹	42	5	17	16	3	0	41	4	9	12	15	2	42
	전교조	122	14	56	32	11	2	115	15	19	22	54	6	116
	화학섬유연맹	67	13	30	15	5	1	64	14	9	8	25	4	60
경제정보연맹	26	0	11	12	3	0	26	4	3	5	11	3	26	
4 지 역 분 부	서울본부	31	5	16	8	2	0	31	2	3	4	15	2	26
	인천본부	44	5	22	12	1	1	41	4	10	4	23	0	41
	경기본부	43	5	16	12	8	1	42	3	13	2	19	4	41
	충북본부	26	5	13	7	1	0	26	2	1	1	19	1	24
	대전본부	67	10	29	22	3	1	65	6	11	6	39	2	64
	전북본부	38	7	18	7	3	0	35	6	7	3	18	0	34
	광주본부	50	7	16	15	6	4	48	3	14	5	24	2	48
	대구본부	41	4	18	13	2	2	39	6	7	4	22	1	40
	부산본부	45	5	20	13	5	0	43	5	9	7	23	0	44
	울산본부	22	4	12	4	0	1	21	4	3	2	10	0	19
강원본부	39	10	18	8	1	2	39	7	6	8	17	0	38	
제주본부	43	9	17	12	4	1	43	5	7	9	14	1	36	

3.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1)

구분	N	진보정당 발전에 기여(p=.008<0.05)						진보적 의제의 정치쟁점화에 기여(p=.000<0.05)						조합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력화 필요성 확대(p=.000<0.05)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22	38	18	8	0	86	25	38	19	4	0	86	36	30	16	4	0	86
	공공운수노조연맹	64	6	24	23	7	4	64	9	32	17	6	0	64	4	28	16	10	5	63
	공무원노조	191	41	70	47	24	6	188	40	82	44	16	6	188	48	61	42	28	9	188
	교수노조	1	0	1	0	0	0	1	0	1	0	0	0	1	0	0	0	1	0	1
	금속노조	114	26	28	30	19	8	111	22	40	32	14	3	111	21	27	33	21	9	111
	민주일반연맹	131	33	48	36	6	1	124	50	42	30	1	1	124	63	36	23	3	1	126
	보건의료노조	44	8	22	11	2	1	44	10	23	7	3	1	44	7	15	13	9	0	44
	비정규교수노조	25	4	12	6	1	1	24	3	13	4	4	0	24	5	5	11	4	0	25
	사무금융연맹	14	1	5	6	2	0	14	3	4	7	0	0	14	1	7	3	3	0	14
	서비스연맹	42	6	15	14	4	3	42	8	16	13	4	1	42	8	16	11	5	2	42
	전교조	122	41	45	20	9	2	117	39	50	25	3	1	118	30	41	29	17	0	117
	화학섬유연맹	67	18	18	20	8	2	66	20	24	12	9	1	66	18	20	15	11	2	66
경제정보연맹	26	2	11	9	4	0	26	4	12	6	4	0	26	3	13	6	3	1	26	
지 역 본 부	서울본부	31	6	14	6	4	1	31	5	12	10	4	0	31	2	10	11	5	3	31
	인천본부	44	11	13	10	7	3	44	12	15	17	0	0	44	10	10	11	11	2	44
	경기본부	43	10	17	10	3	3	43	17	12	10	4	0	43	14	15	9	3	2	43
	충북본부	26	10	11	4	0	1	26	8	12	5	1	0	26	11	6	6	3	0	26
	대전본부	67	11	21	23	7	5	67	15	24	17	7	4	67	18	17	23	5	4	67
	전북본부	38	7	16	8	5	0	36	7	15	11	2	1	36	8	14	10	4	0	36
	광주본부	50	16	20	8	4	1	49	21	13	12	2	0	48	19	14	8	3	4	48
	대구본부	41	4	18	11	6	1	40	7	16	7	9	0	39	7	15	11	6	0	39
	부산본부	45	13	20	6	4	1	44	9	25	7	3	1	45	8	19	10	6	1	44
	울산본부	22	4	5	9	3	1	22	5	9	6	0	2	22	4	9	5	2	2	22
	강원본부	39	4	15	8	7	5	39	3	19	12	3	2	39	7	14	8	4	6	39
제주본부	43	5	15	13	8	1	42	9	19	13	2	0	43	11	14	14	4	0	43	

3.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2) : 정치세력화 혼란에 대한 책임

구분	N	정치세력화 혼란에 대한 책임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p=.004<0.05)						민주노총 지도부(p=.277>0.05)						진보정당(p=.004<0.05)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14	31	27	11	2	85	23	41	11	9	2	86	39	27	11	3	6	86
	공공운수노조연맹	64	10	26	16	7	4	63	18	26	12	6	1	63	36	16	8	3	1	64
	공무원노조	191	41	82	35	22	7	187	49	80	36	15	6	186	105	59	11	8	5	188
	교수노조	1	1	0	0	0	0	1	0	0	1	0	0	1	0	0	0	1	0	1
	금속노조	114	25	36	19	23	6	109	28	48	22	7	3	108	67	23	12	3	4	109
	민주일반연맹	131	28	37	32	24	3	124	28	48	29	15	4	124	58	37	15	9	4	123
	보건의료노조	44	7	20	7	8	2	44	10	17	11	5	1	44	20	19	3	1	1	44
	비정규교수노조	25	1	14	3	6	1	25	6	10	6	1	1	24	14	5	4	2	0	25
	사무금융연맹	14	1	7	4	2	0	14	1	7	5	0	0	13	8	5	1	0	0	14
	서비스연맹	42	6	15	16	5	0	42	10	15	13	4	0	42	14	15	11	2	0	42
	전교조	122	9	43	46	15	3	116	14	62	27	11	2	116	50	51	12	3	2	118
	화학섬유연맹	67	10	36	5	12	3	66	17	28	10	7	3	65	36	21	4	3	1	65
경제정보연맹	26	2	10	9	5	0	26	2	11	10	3	0	26	8	15	2	1	0	26	
지 역 분 부	서울본부	31	6	13	8	3	1	31	6	14	7	4	0	31	17	11	1	1	1	31
	인천본부	44	10	14	16	2	2	44	10	19	12	3	0	44	25	12	6	0	1	44
	경기본부	43	13	14	9	4	2	42	17	13	7	4	1	42	22	9	6	5	1	43
	충북본부	26	3	9	5	5	1	23	5	10	8	3	0	26	13	4	5	0	1	23
	대전본부	67	18	19	15	13	2	67	23	24	14	5	1	67	28	25	10	3	1	67
	전북본부	38	5	14	6	10	1	36	6	15	8	5	1	35	21	11	2	2	0	36
	광주본부	50	14	10	14	10	1	49	26	9	9	4	1	49	21	13	5	6	3	48
	대구본부	41	3	13	10	10	4	40	7	14	10	7	1	39	26	8	2	2	2	40
	부산본부	45	8	18	9	9	0	44	9	21	12	3	0	45	20	18	6	0	0	44
	울산본부	22	6	6	4	4	2	22	8	6	5	1	2	22	10	8	2	1	1	22
강원본부	39	7	13	9	9	1	39	10	16	6	7	0	39	20	15	3	0	1	39	
제주본부	43	5	15	8	11	1	40	10	15	10	4	1	40	18	12	8	1	1	40	

3.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3)

구분	N	노동조합의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활동부족 (p=.272>0.05)						진보정당과의 협력적 관계 미 정착(p=.284>0.05)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부정	매우 부정	소계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22	39	19	4	1	85	30	40	7	5	2	84
	공공운수노조연맹	64	14	34	9	4	0	61	19	23	15	4	2	63
	공무원노조	191	34	90	44	10	5	183	48	82	39	11	6	186
	교수노조	1	0	1	0	0	0	1	1	0	0	0	0	1
	금속노조	114	25	39	33	7	3	107	36	39	23	6	5	109
	민주일반연맹	131	25	44	31	13	8	121	40	42	25	11	4	122
	보건의료노조	44	8	23	9	2	0	42	11	21	9	3	0	44
	비정규교수노조	25	1	14	6	4	0	25	7	13	4	0	1	25
	사무금융연맹	14	2	8	4	0	0	14	3	5	4	2	0	14
	서비스연맹	42	6	17	16	3	0	42	10	19	12	1	0	42
	전교조	122	14	59	24	14	4	115	15	61	23	14	2	115
	화학섬유연맹	67	9	33	14	7	2	65	26	22	14	2	1	65
	경제정보연맹	26	0	11	13	2	0	26	3	10	11	2	0	26
지 역 본 부	서울본부	31	5	14	10	2	0	31	8	15	5	2	1	31
	인천본부	44	10	15	10	5	1	41	10	16	14	4	0	44
	경기본부	43	8	18	8	7	1	42	6	11	6	3	0	26
	충북본부	26	5	12	8	1	0	26	8	15	5	2	1	31
	대전본부	67	12	35	16	2	2	67	10	16	14	4	0	44
	전북본부	38	4	18	11	3	0	36	16	10	9	5	2	42
	광주본부	50	11	19	9	7	3	49	17	15	8	5	2	47
	대구본부	41	6	18	9	4	3	40	7	19	8	2	4	40
	부산본부	45	10	21	11	2	0	44	11	17	10	3	2	43
	울산본부	22	3	10	6	2	1	22	6	7	6	1	2	22
	강원본부	39	6	21	3	6	2	38	11	14	8	5	0	38
제주본부	43	8	18	12	4	1	43	11	12	13	3	1	40	

4. 민주노총의 입장과 역할

구분	N	현재 진보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p=.000<0.05)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에 가장 중심에 되어야 하는 것 (p=.003<0.05)					
		다양한 진보정당 존중하고 활동 인정	민주노총 주도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건설	민주노총 주도로 갈라진 진보정당 재통합	정책중심으로 각 정당과 관계하고 지지정당 미결정	소계	정책연합 등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실현에 주력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하여 배타적 지지활동	진보정당 지지하되, 후보단일화 를 통해 개입력 발휘	조합원에 맡기고 지지정당 미결정	소계	
산 별 연 맹	건설산업연맹	86	2	52	18	6	78	37	21	19	5	82
	공공운수노조연맹	64	12	19	16	15	62	31	14	14	4	63
	공무원노조	191	31	60	58	31	180	98	24	49	12	183
	교수노조	1	1	0	0	1	2	0	0	1	0	1
	금속노조	114	15	46	29	14	104	37	21	36	10	104
	민주일반연맹	131	10	71	31	9	121	50	39	28	1	118
	보건의료노조	44	7	14	14	9	44	19	8	14	3	44
	비정규교수노조	25	9	5	8	3	25	15	1	8	1	25
	사무금융연맹	14	5	5	3	1	14	4	4	5	0	13
	서비스연맹	42	6	21	11	4	42	28	7	7	0	42
	전교조	122	41	31	25	15	112	55	15	43	3	116
	화학섬유연맹	67	5	35	16	6	62	30	13	16	4	63
경제정보연맹	26	7	10	5	4	26	18	1	7	0	26	
지 역 분 부	서울본부	31	1	16	8	5	30	14	7	6	1	28
	인천본부	44	6	22	10	3	41	22	12	4	1	39
	경기본부	43	10	14	12	5	41	14	8	15	2	39
	충북본부	26	1	10	10	4	25	16	4	4	1	25
	대전본부	67	12	25	21	7	65	32	9	22	3	66
	전북본부	38	6	17	10	2	35	17	7	11	1	36
	광주본부	50	2	19	24	2	47	26	10	10	0	46
	대구본부	41	6	19	8	6	39	13	13	9	3	38
	부산본부	45	7	15	20	2	44	20	7	15	3	45
	울산본부	22	2	5	10	5	22	13	1	4	3	21
강원본부	39	4	21	6	6	37	15	9	11	3	38	
제주본부	43	13	10	11	4	38	17	8	15	0	40	